

‘KREI리포터’ 전남지회 간담회 결과

1. 개 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11:00~14:00
- 장 소: 전남 고흥군
- 참 석: 총 9명
 - 전남지회 리포터(7명): 남양완, 채수미, 주양호, 박향숙, 오형동, 신규호, 이재월
 - 연구원 관계자(2명): 송성환 조사동향팀장,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3:00	간담회	전남지회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13:00~14:00	점심식사	바다마을

2. 주요 논의 내용

- 인사말
 - 남양완 지회장: 1기 때 전남지회 총무를 맡다가 이번 2기 때 지회장을 맡게 되었음. 첫 전남지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많은 회원이 참석해주실 것을 독려했으나,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아쉬움. 앞으로 전남지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 송성환 조사동향팀장: 2기 출범 이후 지역별로 간담회를 다녀오고 있음. 전남지회는 연구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회라 더욱이 빨리 뵙고 싶었는데, 연말이나마 얼굴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느껴짐.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음. 바쁜 시간 내시어 참석해주신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남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 남양완: 최근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취지는 매우 좋으나,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가는 혜택 보다 도우미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음. 물론 도우미 일이 쉽지 않아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노인복지 예산이 노인을 위해 활용되도록 더 노력해주기 바람.
- 신규호: 권역사업 중 소득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법인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5가구 이상이면 법인으로 구성해 소득사업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10가구 이상 되어야 소득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고령화로 인해 나이든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 자녀들이 큰 이익이라도 있는 듯 발목을 잡기도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의견 갈등도 많음. 5가구로 줄여 이러한 문제를 줄여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임.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실사를 위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올 때, 간혹 농경 시기가 잘못 맞춰 휴경이라며 농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조사결과를 반영하려 하니 갈등이 많음. 전문적인 농업 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해주길 바람.
- 남양완: 요즘 쌀 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쌀 가격을 올려주거나 직불금 금액을 상향 조절해줄 것을 요망함.
- 채수미: 본인은 해남에서 품질관리위원회 현장조사반으로 활동하고 있음. 15명으로 구성해 GPS를 대여해 농업경영체 정보와 대조해 농약사용 등 유기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유기농가에서 농약 사용 시 사진을 찍어 품관원에 올리고, 품관원에서 실제 조사를 나와 판단하여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게 됨. 같은 지역사람이지만 농업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므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음.
- 오형동: 4차 산업혁명으로 최근 농업에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김종근: 작목별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농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현재 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품 안전을 농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송성환: 적용 약제를 지정해두고 이외 약제를 사용해 검출됐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19년 1월 1일에 추진될 예정임.
- 오형동: 인삼농사가 특히 위기임. 10년 전 뿌려진 농약이 땅에 남아있어 농약 잔류량이 있는데, 이전 것까지 다 피해를 감수해야 함. 제도가 없을 때 심어놓은 것인데, 새로 개간해서 한 것도 검출될 확률이 있어 매우 불안함. 당장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함.

○ 전남지회 활성화 방안 논의

- 남양완: 이번 간담회 소식은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참석률에 아쉬운 마음이 듦. 다음 모임 때는 우편물을 보내는 등 회원들의 참석 독려에 노력하겠음.
- 채수미: 리포터 연령선에 제한을 두어서 선정하면 좋겠음.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못 쓰고, 7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리포터 활동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송성환: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상 연령으로 나눈다 하면 현재 회원 중에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문제임.
- 박향숙: 일반 친목 모임이라 하면, 연령에 제한을 두어야겠으나 리포터는 현장의견 수집해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주양호: 다음 간담회는 회원 농가를 들러 견학하고, 벤치마킹의 기회

를 갖는 것이 좋겠음.

- 남양완: 장성에 있는 김진환 리포터가 편백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숲체험도 하고 6차산업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함. 1월 중에 1분기 간담회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음.

3. 이모저모

